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오늘은 추수감사절 · 교회설립 7주년

주일 낮 감사예배와 성찬식...찬양예배 댄 장로임직식

오늘 98 추수감사절과 교회 창립 7주년 기념일을 맞아 교회는 I · II · III부 예배를 감사예배로 드린다.

예배 중에 성찬식을 갖고 추수감사절 헌금도 같이 드리게 된다.

교회학교별로도 각기 감사와 축하의 시간을 갖는다.

한편 오늘 찬양예배 시 제 5대 장로임직식

을 갖는다.

오늘 장로장립식에선 왕경래 · 하영수 · 노송성 · 서문석 · 박두호 등 5명의 피택장로들이 임직을 받고 장로에 장립하게 된다. 이들 5명의 장로들은 지난 6월 첫 주 공동의회에서 선출되어 약 6개월간의 교육을 거쳤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 시무 장로는 모두 23분으로 늘어나게 됐다.



왕경래



하영수



노송성



서문석



박두호

비전2020운동 현판식

비전2020운동 현판식이 실천본부 임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새벽기도회가 끝난 후 교회 앞뜰에서 열렸다.

현판은 가로 40cm, 세로 30cm, 두께 5cm의 크기로 황금색 바탕에 삼위일체 십자가

를 새겨 넣었으며 비전 2020운동을 전국 교회로 확산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백성을 그리스도께로!

<현판 설명>

1. 방패 모양은 ‘믿음의 방패’를 의미하며 받은 비전을 믿음으로 실천함을 상징한다.
2. 방패 안의 삼위일체 십자가는 군선교의 목표인 ‘복음화된 통일 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가능함을 고백하는 것이다.
3. 십자가 밑에 있는 4가지 색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십자가 밑에 우리 군이 모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방패 안의 X자형은 우리 국민 전체가 십자가 복음으로 모여 오는 것을 상징한다.

비전2020 운동

실천교회



비전2020실천교회 현판

5. 전체 판은 우리나라 옛 대문을 연상케 하고 비전2020운동은 생명을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운동임을 상징한다.
6. 판의 색상은 황금색으로 불변성을 가리키는 종교성을 상징한다.
7. 비전2020운동 실천 교회들이 ‘이 백성을 그리스도께로’라는 표어 아래 동참하기 위해 표어를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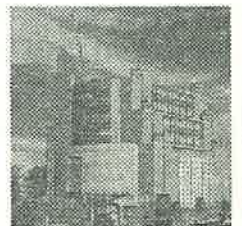
새 예배당 소식

2001년 5월 1일 준공

총 4500평 21세기 도시교회 모델

새 예배당을 회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점차가 시화 되고 있다.

지난 주 건축위원회(위원장 오정수 장로)가 당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교회 예배당 시공회사로 상상종합건설회사(사장 황치현 장로)가 선임되어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회사의 선정은 설계를 맡은 정립건축이 제출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 건축심의팀이 수주 동안 세밀히 검토하고 이를 수정한 후, 입찰에 응한 24개 회사 중 4개 회사를 선정했고 다시 그중 우리 교회가 제시한 조건과 부합되는 2개 회사를 뽑아 최종 경합 끝에 특별위원회 위



원들이 만장일치로 상상종합건설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제직회에서는 시공회사 선정에 잡음을 줄이기 위해 특별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바 있다.

공사기간은 30개월이며 주일엔 공사를 하지 않는다. 감리는 서린, 대영, 유원건축과 미가 엔지니어링에서 맡게 된다.

상상종합건설 황치현 장로는 서울 영동교회(고려파)에서 장로 안수를 받은 후 현재 영동교회가 개척한 일원동 교회 장로로 시무하고 있으며 선천(황득환 목사)과 만형(황치현 목사), 조카와 본인의 아들이 모두 목사로 바쳐진 가정이다. 서울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일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로 생각하여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21세기 첫 문을 여는 2001년 5월 1일 새 예배당을 준공키로 되어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이 있기를 건축위원회는 당부하고 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라”

교회로 교회 되게 하자

교회설립 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 더욱이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다시 헤아려보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교회설립 7주년 98추수감사절 메시지

이종운 목사



제물로 제물되게 하자

제물과 상품의 가치는 그것이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에 있는 것이다. 모세 율법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제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것이 성전 내에 들어와 있다 해도 파를 흘리고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이다.

제 2차 대전 이후 최초로 모인 기독교 회의의 개회식은 장례식으로 시작된 바 있다. 누구의 장례식인지 궁금해 하는 회원들에게 사회자는 관을 열고 공개했다. 관 속을 들여다 보고 각국 대표들은 처음에는 놀라고 나중에는 심각한 표정들이 되었다. 텅 빈 관 바닥에 깔린 거울 속에 비친 것은 곧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전쟁으로 생긴 국가간의 적대감을 먼저 장사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 나뭇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 되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제물인가, 아니면 상품인가? 제물이라는 미명 하에 자신을 팔기를 일삼았다면 주님께 책망을 받기 전 회개하고 자신을 제물되게 해야 한다. 동시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쳐진 성도들의 크고도 놀라운 희생을 감사할 줄도 알아야겠다.

성직으로 성직되게 하라

성전 구내에 우양을 끌여 들여 매매하는 행위는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의 독점기업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상인이었고 성직자라기보다는 악덕 장사꾼이었다. 주께서 채찍을 드시게 된 것은 사필귀정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세상 영광보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미 사형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예수 위해 죽기로 확정되어 형장으로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직자라면 이런 사람이 어찌 만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자기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모범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7년을 하루같이 달려 온 서울교회 성도들은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할 일 많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르게 헌신한 많은 일꾼들로 인해 우리는 감사를 크게 드려야 한다.

성전으로 성전되게 하라

성전을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이라 하셨다. 이 세상 모든 곳이 그래야 하지만 성전은 아버지의 주권이 행사되는 아버지의 집이 되도록 해 드려야 한다.

제물이라는 미명 하에 자신을 팔기를 일삼았다면 주님께 책망을 받기 전 회개하고 자신을 제물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세상 영광보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 되고 기도하는 집이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다. 이 세상 모든 곳이 그래야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을 바로 쳐다볼 수 있는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해 드려야 한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 되고 기도하는 집이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다.

지나간 7년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다가올 서울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의 눈물을 흘리면서 동시에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뿌리고 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해서 민족 교회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구실을 할 수 있

도록 축매가 되고 기쁨제가 되는 것이 서울교회가 받은 사명이라

그토록 애타게 기도하던 새 예배당 신축도 주님의 특으로 모든 방해물이 제거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무엇을 더 말하리오. 본래 빈 손 들고 왔으며 본래 죄인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분한 대우를 해 주셨다. 이제는 주님께 이 생명을 갈아 바칠 수만 있다면 열 번, 백 번이라도 할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나이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순례자 컬럼

섬기는 자의 자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처럼 예수는 섬기는 자로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섬기는 자는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사랑 없는 섬김은 굴종이 아니며 이기심에 의한 치부가 될 뿐이다. 섬기는 자는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의 행동은 자신의 위치나 신분을 잠시 혼동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 자기 희생적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산 교훈이다.

섬기는 자는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한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도 이웃도 섬길 수 없다.

대접을 받기보다 섬기는 종의 자세로 세상을 사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중산층 이상의 가정은 식구마다 자기 방이 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독방이 배정되어 있어서 철저히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 있고 누구도 사생활 침해를 하지 못한다. 심지어 부모까지도 아들·딸 방에 용무가 있을 때엔 노크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이 규칙은 어길 수 없는 법이다.

그래서 자식들은 자기만이 누릴 수 있는 독방에서 자유와 평화를 노래할 수 있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들이고 다함이 없는 감사의 조건인가?

그런데 각자 자기 방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가정이 무너지고 사랑과 타협과 양보가 사라지게 되었다. 누구나 자기 방에 들어가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방을 개방하거나 열어 주지 않으면서 초저녁부터 깊은 밤중까지 홀로 시간을 보낸다. 그것도 좋은 독서나 고전 음악감상이 아닌 추천할만한 것이 못되는 각종 오락이나 컴퓨터 장난만 계속하면서 말이다. 그것 때문에 가족도 잊게 되고 대화나 함께함의 축복은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은 비뚤어지기 시작하였고 가정은 무너지게 되었고 더구나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델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한 이불 덮게 됨을 감사

김광신 장로(11교구)

그런데 공황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비극의 현장을 도저히 묵과하실 수가 없으셔서 극단의 조치를 내리신 것이다. 그것이 작년 말에 일어난 IMF 사태인 것이다. 한국 경제가 갑자기 곤두박질하기 시작했고 실업자가 급증하고 가정마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자기 집이 있던 가정은 전세집으로 옮겨야 했고 전세살이하던 가정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사글세로 옮겨야 했다. 결국 식구마다 방 하나씩 소유했던 행복은 과거사로 끝이 났고 방 하나에 온 가족이 동거해야 하는 60 - 70년 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것은 모든 가정의 아픔이고 비극이고 고통이다.

그러나 이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 식구마다 각자의 방을 사용할 때는 전혀 감사함이나 고마움을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제 같은 방을 쓰게 되면서부터 가정을 알게 되고 사랑과 양보와 가난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더구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이해심 없던 그 생활이 정반대의 삶으로 옮겨가게 되었으니 이보다 감사한 일이 또 있겠는가 말이다. 좁은 방에서 여럿이 동거해야 하는 불편함은 따르겠지만 그 좁은 방에서 같이 땀 흘리며 웃고 떠들고 몸을 비빌 수 있는 은총이 생긴 것 아닌가 말이다.

추수 기쁨도 감사의 중요한 요건이 되지만 그보다 몇 배 더 크고 감격적인 감사를 금년 추수감사절에 맛보게 되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닌가 말이다.

오늘 밤도 한 이불 안에서 온 식구가 머리를 맞대고 누어 자면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는다.

순례자 창간 7주년

그간 순례자에 관심을 갖고 아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원고 및 의견은 순례자편집실 (팩스 (02)516 - 9641, pc통신pek9@chollian.net)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신 직업도 하나님 은혜임을 감사

홍정선 집사 (1교구)

지금은 수확의 계절이며 감사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곳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내용들을 헤아려 보면 실로 만가지 은혜였습니다. 그 으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크게 그리고 많이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며 지내왔던 지난 1년 간을 회고하면서 감사할 조건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시136편에서 여호와를 향한 감사의 노래를 찾았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그리고 기업을 주시고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내용 등 26가지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며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많고 많이 받은 은혜 중에서도 한 가지 은혜에 새삼 감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특이한 직업을 주셔서 감사하며 자영업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업 때문에 시간과 여건에 구애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자영업할 수 있는 업을 주셨고 그 중에서도 모든 면에 더욱 자유로울 수 있는 직종(양봉업)을 주셨기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과 주위 여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집 떠나면 고생이란 옛말이 있듯이 일년이면 태반을 객지로 이동하며 사는 생활이 고달픈 점

도 없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감사할 조건들이었음을 어찌합니까. 자연을 벗삼으며 사는 생활이 감사했습니다. 오묘하신 조물주의 숨씨를 만끽하며 사는 생활도 감사했으며 많이 주시면 더욱 감사하고 적게 주셔도 노력에 비해 과분한 생활이었기에 감사했습니다. 살기 다름과 공해로 찌든 속세를 떠나 대자연 속에 파묻혀 틈나면 성경 보고 무시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생활이었으니 필설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 무슨 감사로 보답할까요.

우리의 이상향 가나안 복지를 짓과 풀이 흐르는 곳으로 묘사한 것은 양봉을 업으로 살아온 저에게 자부심을 갖기에 적절한 표현이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보다 더 많이 감사드려야 할 이유로 충분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특히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14학기 종강

한국교회개신연구원 제 1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10주간의 과정을 마치고 지난 16일(월) 종강식을 가졌다.

이날 1교시를 마친 후 한국교회개신연구원원감 오정수 장로의 학사보고가 있는 후 졸업생 대표 이근주 목사(경북 영주 갈분교회)가 답사를 했고 원장 이종윤 목사가 김성도 목사와 44명에게 수료증서를 주었다.

수료식 후에는 그동안 이번 학기 세미나를

위해 기도와 물질 그리고 몸으로 헌신해 온 서울교회 봉사자들이 목회자 수강생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여 감사를 받고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이날 수료식 후 수료자들은 기념촬영을 했고 수강자 전원은 준비된 떡을 나누며 교회개신의 동역자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우의를 다졌다. 이 날의 떡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성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기 위

비전2020실천결의대회

서울교회 모범사례로 발표

비전2020운동 실천결의대회가 13일(금)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결의대회에서 우리 교회 이종윤 목사(비전2020운동위원회 위원장)는 전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환영사와 대회사를 했고 '21세기를 향한 한민족교회의 사명'이라는 제하

의 특강을 했다.

또 이 대회에서 홍정호 장로는 비전2020운동의 모델교회로 우리 교회의 사례를 발표했다. 홍 장로는 사례 발표를 통해 우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기도작전, 말씀작전, 전도작전, 그리고 봉사작전 등 4대 목표와 실천방향을 제시하여 전국 교회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여전도회 총회 결과

여전도회는 지회별로 1999년도에 수고할 일꾼을 선출중이다.

총 20개 지회 중 일꾼이 확정된 15개 지회의 일꾼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도회	연령	지회	회장	부회장
하나	만 60세 이상	2	권영옥	이영자
에스터	만 50-59세	1	이해순	박정순
		2	조삼원	왕경희
		5	전용순	장낙희
		6	김예환	박경희

전도회	연령	지회	회장	부회장
루디아	만 40-49세	1	최재춘	이영자
		2	김상옥	김현정
		3	김정옥	박창희
		5	김명화	이성애
		6	허 숙	송숙영
		6	허 숙	송숙영
마리아	만 39세 이하	1	서희자	조숙경
		2	이현주	김복희
		3	김정란	김규희
		4	이명신	박남순
		6	조선영	김영림
		6	조선영	김영림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괌(Guam)에 있는 아가페장로교회 집회 인도차 26일(목)에 출국하여 12월 3일(목)에 귀국한다.
- ◇ 신순우 집사(4교구, 예배위원)는 18일(수)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해외식품박람회 참석차 출국했다.
- ◇ 한현숙 집사(3교구, 임마누엘찬양대 오르가니스트)는 23일(월) 영산아트홀(국민일보 빌딩 내)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 ◇ 오늘 점심식사는 피택 장로 가정에서 제공했다.

해 준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개신연구원의 등록인원은 총 9,000여 명이며 네 학기를 수료한 김치동문은 모두 726명이다.

제 1권사회 회장 이옥녀 권사 제 2권사회 회장 이영자 권사



이옥녀 권사



이영자 권사

당회는 99년도 권사회 회장으로 이옥녀 권사와 이영자 권사를 제1권사회와 제2권사회 회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권사회 총회는 11월 25일(수) 수요일 I부 예배 후 제1, 2 권사회 연합으로 403호실에서 갖게 된다. 예배 드린 후 두 지회는 각각 나누어 회의를 진행케 된다.

우리 교회는 70세 이상(1929년생을 포함하여 그 이전 출생자)인 권사들로 제1권사회를, 70세 미만(1930년생을 포함하여 그 이후 출생자)인 권사들로 제2권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1년에 한 차례 연합모임을 갖고 있다.

스데반회 간사장 이완형 집사



이완형 집사

당회는 99년도 스테반회 간사장에 이완형 집사를 임명했다.

스데반회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들의 모임이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찬양의 시간이 매주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1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 새로 선출된 일꾼들을 위해
3. 비전2020운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